



정원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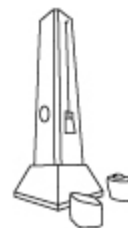
지도를 따라 야외조각들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어 자신만의 정원 산책로를 그려볼까요?

야외 조각 작품 정보

1 문신 Moon Shin
和(화) Concord



2 다니엘 쿠브외르 Daniel Couvreur
경남의 오벨리스크 Obelisk in Gyeongnam



3 막스 샤르볼렌 Max Charvolen
델피의 마살리오트 유적 Massaliot Treasury
Delphi North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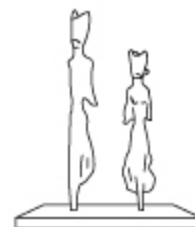
4 이종빈 Lee Jong Bin
생각하는 나무 Thinking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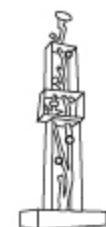
5 플로리안 클레어 Florian Clarr
240개의 세포 240 Cells



6 리오나드 어소 Leonard Urso
가디언 Guardian



7 임형준 Lim Hyeong Jun
소리-2000 Bruit-2000



8 리날도 비지 Rinaldo Bigi
경남의 몬티테벨로 Montebello in Gyeo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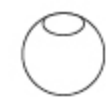
9 알버트 헤팅어 Albert Hettinger
숨겨진 용의 짝 Pair of hidden drag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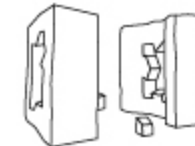
10 덕 부이스 Doug Buis
우리가 갈 곳 Place we will go



11 블라디미르 스코다 Vladimir Skoda
세계의 축 AxisMundi



12 정희만 Jung Hoi Man
밀레니엄+마음 Millennium+Cuore



13 아쓰오 오카모토 Atsuo Okamoto
보금자리의 표면 Kn.(CrustNest)



14 임동락 Lim Dong Lak
Point-人+間
Point-Human+Relationship



15 제랄드 시칠리아노 Gerald Siciliano
추락하는 이카루스 Icarus Descended



16 카린 반 오메렌 Karin Van Ommeren
달 The Moon



경남도립미술관
야외조각 교육프로그램
정원산책

① 문신 Moon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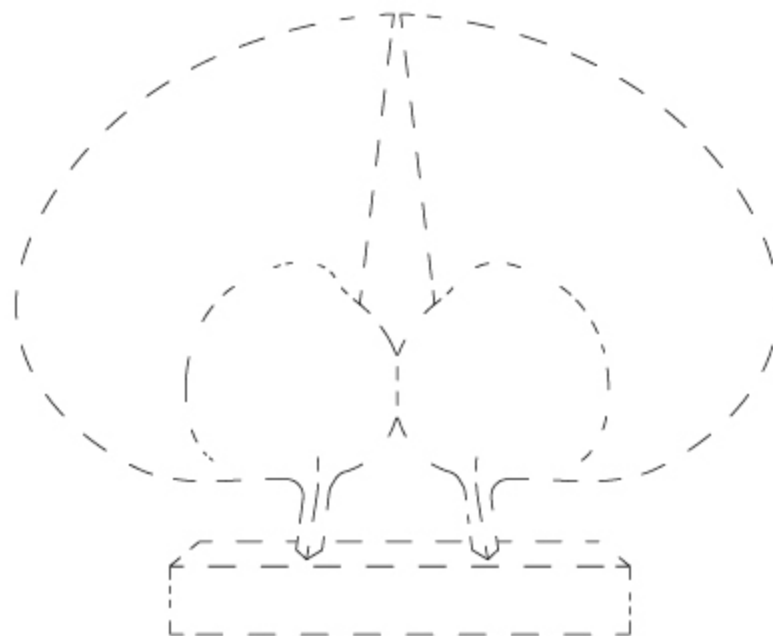
和(화) Concord

1984, 스테인리스 스틸, 269×65×191cm

작가는 대칭과 비대칭의 조화를 통해 우주의 생명성을 표현했습니다. <和(화)>는 주로 대지에서 돌아난 싹의 떡잎, 허공 속 날갯짓 하는 새의 모습, 나비 한 쌍의 입맞춤 등을 묘사하고 좌우 대칭 속 조화와 균형미를 추구하며 생명 현상의 근원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Q. 작품 <和(화)>는 어떤 대칭적 사물을 형상화한 것일까요?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② 다니엘 쿠브뢰르 Daniel Couvreur
경남의 오벨리스크 Obelisk in Gyeongnam
2003, 화강석, 180×180×500cm

작가는 일반적으로 깎아내는 제작 방식과 달리 쌓기에 의한 제작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오벨리스크 형태에 은유와 상징의 조형들을 활용하여 서사적 구조를 담아냅니다. <경남의 오벨리스크>는 각 면에 표현된 다양한 조형들을 통해 여러 문화의 융합을 상징화합니다.



③ **막스 샤르볼렌 Max Charvolen**
델피의 마살리오투 유적
Massaliot Treasury Delphi North Corner
2003, 철판, 360×262×520cm

작가는 건축물이나 기물과 같은 3차원적 실물을 2차원적 공간으로 해석하여 그 차이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델피의 마살리오투 유적〉은 2,600년의 마르세유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리스 델포이의 건축물을 형상화하여 그것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경남 지역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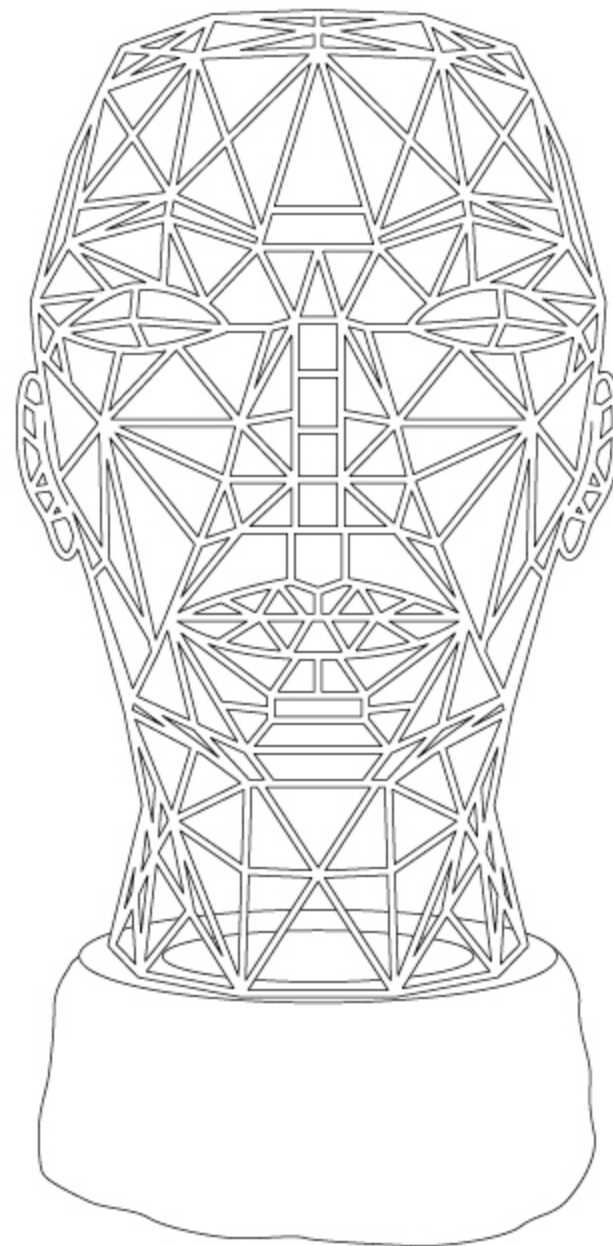
Q.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남의 역사를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④ 이종빈 Lee Jong Bin
생각하는 나무 Thinking Tree
2003, 철봉 용접, 220×240×290cm

작가는 현대인의 이분법적 인식 체계에 반하며,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하는 나무>는 조형 구조물 안의 생장하는 나무가 작품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조각의 시간성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작품 <생각하는 나무> 속에 여러분들만의 나무 한 그루를 드로잉 해보세요.



⑤ 플로리안 클레어 Florian Clarr
240개의 세포 240 Cells
2000, 알루미늄, 390×390×390cm

작가는 구조적 프레임으로 인해 생기는 내·외부의 관계성을 통해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을 해체합니다. <240개의 세포>는 240개의 동일한 개별 요소들로 구성되어 거대한 형체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요소와 거대한 형체 사이의 유사성을 시각화합니다.



⑥ 리오나드 어소 Leonard Urso
가디언 Guardian
2003, 동판, 70×80×600cm, 70×80×700cm

작가는 철판을 두드리는 기법을 이용해 독특한 모양과 거대한 크기로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가디언>은 인체의 모습에서부터 미래를 그려보도록 제안합니다.



7 임형준 Lim Hyeong Jun
소리-2000 Bruit-2000
2000, 청동, 140×70×600cm

작가는 인간의 물질 및 문명화된 현대 사회와 자연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소리-2000>은 소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여, 다양한 언어가 갖는 의미와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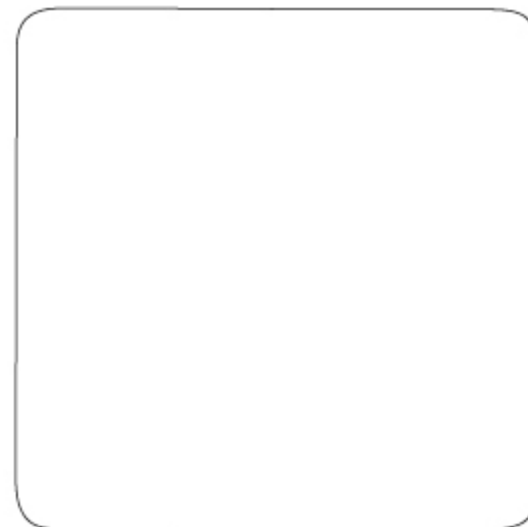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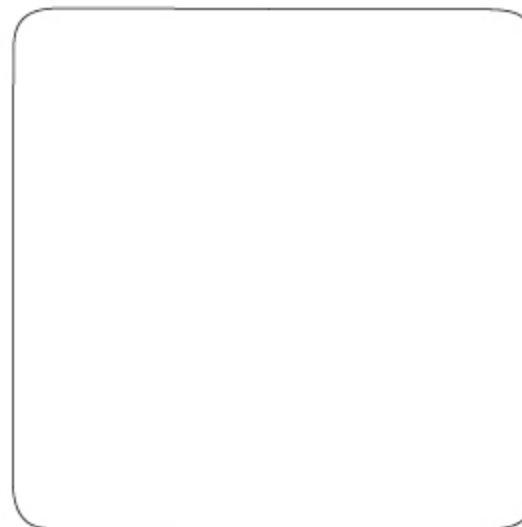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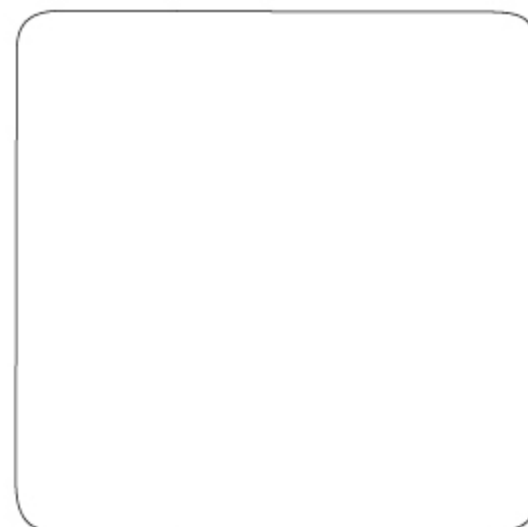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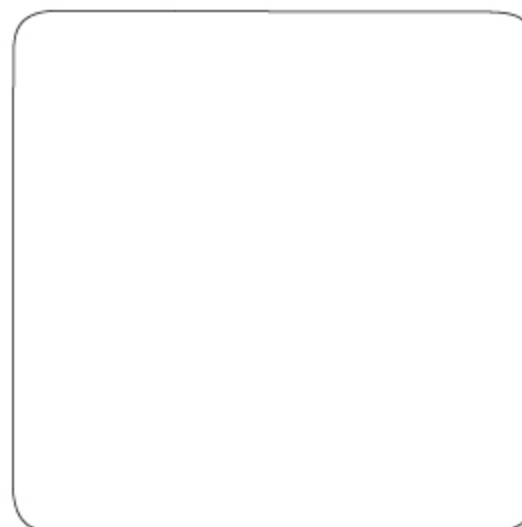


8 리날도 비지 Rinaldo Bigi
경남의 몬티테벨로
Montitebello in Gyeongnam
2000, 화강석, 300×230×370cm

작가는 다양한 종류의 모습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각각의 모습이 갖는 상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남의 몬티테벨로〉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해 긴 머리를 가진 달, 거북이, 말을
형상화하여 다가올 미래를 말합니다.



Q. 〈경남의 몬티테벨로〉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활용하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아래의 빈 사각형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네 컷의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아요.



9 알버트 헤팅어 Albert Hettinger
숨겨진 용의 짝 Pair of hidden dragons
2003, 자연석, 240×190×200cm

작가는 돌이 지닌 단단함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숨겨진 용의 짝〉은 제각기 다른 답을 드러내는 돌과 그 속에 감추어진 용을 정원에 꺼내놓으며 작품에 대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Q. 작가는 돌에서 용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여러분은 정원 속 단단한 돌에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상상하며 그려볼까요?

10 덕 부이스 Doug Buis
우리가 갈 곳 Place we will go
2000, 스테인리스 스틸, 화강석,
800×700×200cm

작가는 풍경과 환경에 대해 인간의 바라보는 방식 및 변화를 탐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망원경, 돌, 의자 등 다양한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에서 출발하여 개인 간 소통과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11 블라디미르 스킨다 Vladimir Skoda
세계의 축 Axis Mundi
2000, 스테인리스 스틸, 180×180×180cm

작가는 주로 둥근 형태와 재료의 특징에 따른 질감의 차이를 통해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세계의 축〉은 정확히 북극성을 향해 빛을 보내는 장치를 만들어, 우주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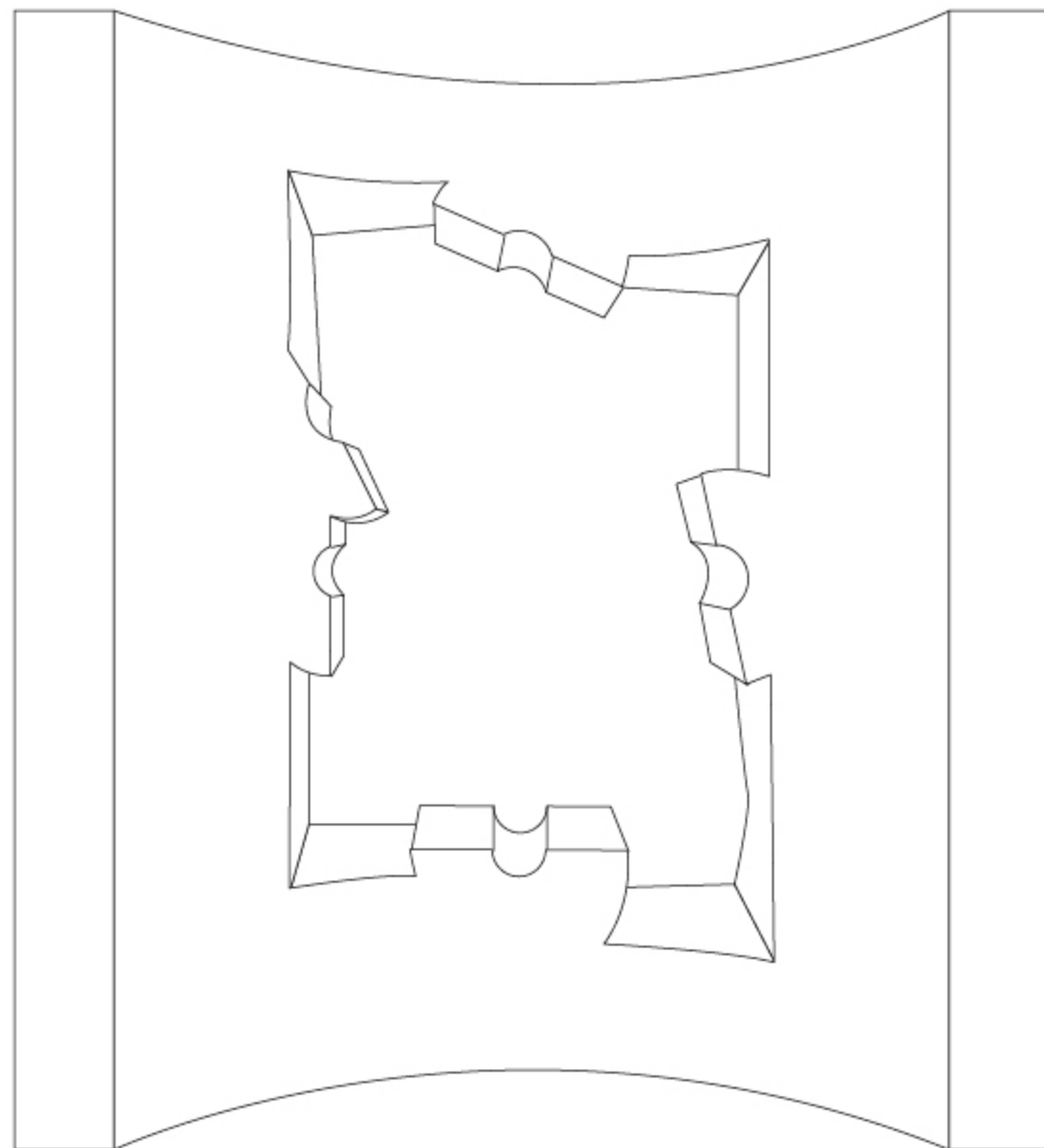
Q. 〈세계의 축〉은 북극성을 향해 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 빛 속에 우리의 소원도 함께 보내볼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12 정희만 Jung Hoi Man
밀레니엄+마음 Millennium+Cuore
2000, 화강석, 250×400×300cm

작가는 예술을 통해 동양의 오랜 전통과 현대사회의 연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밀레니엄+마음〉은 변형 없이 본래의 표면을 갖고 있는 조각의 바깥면에 기하학적 형태를 조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쓰인 사각기둥은 우리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 〈밀레니엄+마음〉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풍경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아래에 각자의 풍경을 표현해주세요.



13 아쓰오 오카모토 Atsuo Okamoto
보금자리의 표면 Kn.(Crust Nest)
2000, 화강석, 285×160×190cm

“계속되는 작업과정에서 나는 외부의 형태는 내버려 둔 채 내부 세계를 조각한다. 마치 동물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작가는 기존의 석고 조각 방식과 달리, 돌이라는 물체가 가진 특징을 이용해 내부를 조각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14 임동락 Lim Dong Lak
Point-人+間 Point-Human+Relationship
2000, 스테인리스 스틸, 110×90×500cm

작가는 곡선의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를 대비시켜 다양한 변화를 연출하고, 그것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Point-人+間〉은 인체의 부분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 시킨 작품으로, 기계문명의 발전에 따른 현대 사회 속 변화하는 인간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16 가린 반 오메런 Karin Van Ommeren
달 The Moon
2000, 화강석, 180×75×300cm

“둥근 형태는 달을 상징한다. 밤에 달을 바라볼 때
하얀 불빛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얼굴과 풍경을 상상한다.
이는 우리의 상상의 마술이며 꿈의 형상이다.”
작가는 기하학적 형태와 내부의 공간을 이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달을 닮은 조형물은 새로운
상상과 꿈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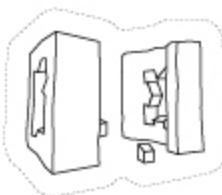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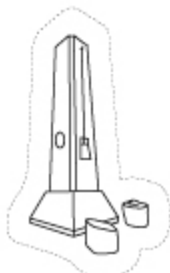
6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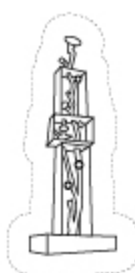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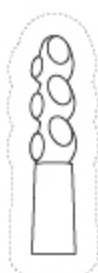
3



7



14



4



8



15



5



9



16



10



11



GAM

경남도립 미술관
아외조각 교육프로그램
정원산책